

Art OnO 2026 | PRESS RELEASE

2026년 4월 2일 – 2026년 4월 5일

Art OnO – SETEC, Seoul

Art OnO 2026 _ Booth 112

4 월 2 일 12:00 – 19:00 (VIP)

4 월 3 일 11:00 – 19:00 (Preview)

12:00 – 19:00 (Public Access)

4 월 4 일 11:00 – 19:00 (Preview)

12:00 – 19:00 (Public Access)

4 월 5 일 11:00 – 18:00 (Preview / Public Access)

조현화랑은 오는 4월 SETEC에서 개최되는 제3회 Art OnO에 참가한다. 이번 Art OnO에서 조현화랑은 물질과 공간의 관계를 탐구해 온 모노하 작가 키시오 스가와 디지털 이미지와 회화적 감각을 결합해 새로운 풍경을 구축하는 진 마이어슨의 2인전을 선보인다.

진 마이어슨은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 그리고 AI 기반 시각 자료에서 출발한 이미지를 왜곡·확장·압축하며 회화적 언어로 재해석한다. 사진, 공간 스캔, 3D 렌더링, 문서 이미지 등에서 비롯된 시각 정보는 캔버스 위에서 색채와 빛, 그리고 물질적 표면을 통해 다시 구성된다. 이 과정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된 비물질적 이미지를 회화의 제스처와 질감 속으로 환원시키며, 실제와 가상이 교차하는 다층적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번 Art OnO에서 선보이는 *Post California 1.1* (2024)은 대형 캔버스 안에서 서로 다른 시점과 시간의 파편들이 뒤틀리고 중첩되며, 풍경으로 읽힐 듯하면서도 고정되지 않는 유동적 장면을 형성한다. 디지털 스크린을 연상시키는 화면의 분절과 흐름은 하나의 고정된 장소라기보다 기억, 이동, 감각이 충돌하는 시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Allele 35* (2024)는 상대적으로 압축된 화면 안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응축된 방식으로 보여준다. 제목이 암시하듯 '유전적 단위' 혹은 '변이'의 개념은 이미지의 분열과 재조합이라는 형식적 전략과 맞물리며, 화면은 하나의 완결된 재현보다는 변형과 전이의 흔적으로 나타난다. 두 작품은 모두 데이터와 스크린 기반 이미지와 붓질과 표면의 질감을 거치며 물성을 획득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디지털 이미지의 비물질성과 회화의 물질성이 교차하는 지점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Art OnO에서 진 마이어슨은 4월 5일 오후 4시 아티스트 토크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이미지와 인식에 대한 탐구는 물질 자체와 공간의 관계성에 집중하는 키시오 스가의 작업과 대비를 이룬다. 일본 모노하(もの派) 운동을 이끈 키시오 스가는 나무, 금속, 돌 등 다양한 재료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배치하고 결합하며 물체와 공간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작업을 이어왔다.

이번 전시에서 소개되는 *Connected Peripherie* (2010)는 원통 구조 안에서 서로 기대고 균형을 이루며 놓인 요소들을 통해 공간과 물체가 만들어내는 긴장감을 드러낸다. 가공되지 않은 재료가 형성하는 물리적 균형과 미묘한 긴장은 조각을 독립된 대상이 아닌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도록 유도하며, 작품이 놓인 공간 전체로 확장된다. *Divided Space, Systemic Causes* (2017) 역시 서로 다른 사각형의 병치를 통해 물질 간의 물리적 긴장과 공간적 간극을 드러낸다. 요소들 사이의 간격과 관계 자체가 조각적 언어로 제시되며, 공간을 구성하는 조건을 드러낸다.

Johyun Gallery

진 마이어슨이 이미지의 층위와 시선의 이동을 통해 공간을 재구성한다면, 키시오 스가는 물질 간의 물리적 관계를 통해 공간을 드러낸다. 이번 2인전은 이러한 대비와 교차를 통해 감각과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며, 동시대적 공간 경험을 새롭게 제안한다.

*고화질 이미지는 아래의 표기된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화질 이미지 연결\]](#)

Art OnO 2026

진 마이어슨 <https://www.johyungallery.com/artists/41-jin-meyerson/overview/>

추상과 구상을 넘나들며 역동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진 마이어슨 작가의 작품은 인간이 겪는 상실과 우울, 이주의 역사를 공유한다. 무작위 CG 시스템을 회화와 결합한 선구자로 2000년대 뉴욕의 추상회화의 새로운 부활에 기여했으며, 최근에는 LDR 스캔, AR 오버레이 및 레트로 인과성(Retro causality)을 활용하여 회화의 존재론적 의미 및 동시대성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 있다. 진 마이어슨은 베니스 비엔날레, 뉴욕의 Zach Feuer 갤러리를 포함해 파리와 홍콩의 갤러리 엠마누엘 페로탱, 런던의 사치 갤러리, 룩셈부르크의 Nordine Zidoun, 서울과 천안의 아라리오 갤러리, 서울과 상하이의 학고재 갤러리, 홍콩의 펄램 갤러리 등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그의 작품은 뉴욕의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 런던의 사치 갤러리, 브뤼셀의 반헤렌츠 컬렉션, 로스 앤젤레스의 딘 발렌타인 컬렉션, 마이애미의 데라 크루즈 컬렉션, 뉴욕의 슈퍼이어가 컬렉션, 자카르타와 상하이의 유즈 재단, 도쿄의 다구치아트 컬렉션, 자카르타의 자카르타 현대 미술관, 방콕의 산삽 박물관 등 수많은 공공 및 개인 소장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Johyun Gallery



Post California 1.1, 2024

Oil on Canvas

250 x 200 cm

Johyun Gallery



Allele 35, 2024

Oil on Canvas

53 x 45.5 cm

키시오 스가 <https://www.johyungallery.com/artists/71-kishio-suga/overview/>

일본의 모노하(もの派, mono-ha) 운동을 이끈 키시오 스가는 나무, 금속, 돌, 종이, 로프, 콘크리트, 왁스, 비닐 등의 물체를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공간 안에 배치하여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물체와 물체, 물체와 공간 사이의 중간 영역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작품에 개입하며, 회화나 조각이라는 기존의 예술 장르를 넘어 일종의 풍경을 통한 유동적 관계를 경험케 한다. 그는 1964년부터 1968년까지 도쿄의 타마미술대학교를 다녔으며, 당시 아르테 포베라, 랜드아트 등의 국제적 흐름에 영향을 받은 노부오 세키네, 지로 타카마츠와 같은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모노하를 탄생시켰다. 졸업 직후 자연과 사물을 이용한 일시적인 구성물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이를 도쿄의 야외 장소에 배치하여 "필드워크"라는 용어로 정의했다. 그는 이러한 활동을 실내 환경으로 옮기며, 파라핀 왁스로 만든 토템 모양의 "평행 지층" (1969)이나, 세로로 놓인 강철 판 네 장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인 "소프트 콘크리트" (1970)과 같은 전례 없는 설치 작품으로 인정을 받았다. 제 8 회 파리 비엔날레, 제 38 회 및 제 57 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작품을 선보인 그는 지난 40 년동안 파리의 국립 현대 미술 센터,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현대 미술관, 뉴욕 현대 미술관, 베니스의 푼타 델라 도가나 등 유수의 미술관의 주요 전시에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뉴욕의 Dia Chelsea 와 밀라노의 피렐리 행거비코카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그의 작품은 현재 다양한 공공 및 사립 컬렉션에 포함되어 있다.



Connected Peripherie, 2010

Wood, acrylic

201 x diam.35 cm



Divided Space, Systemic Causes, 2017

Wood, acrylic

189 x 139.5 x 9 cm

Johyun Gallery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저작권 정보와 조현화랑 제공을 함께 명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이미지는 전시기간 내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이 윤 희

M 010-3550-1170

E press@johyungallery.com